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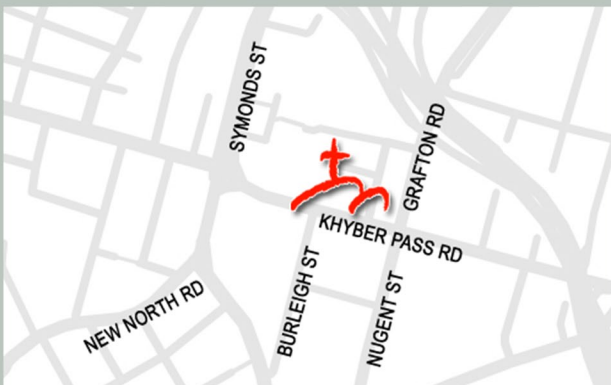
우리 갈보리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담임 목사와 만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 2부 예배 후 각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총회 준비와 성탄 준비에 관해 의논하기 바랍니다 (찬송, 기도, 안건 토의).
- 이번 주 수요일예배는 선교지를 탐방한 이광희 장로님의 간증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지/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 바누아투).
- 11월 저녁 기도회가 오는 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위로와 능력을 체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 2019년 성탄 축하 예배와 축하 행사 시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5일).
성탄 감사 예배/ 오후 5-6시
저녁 식사/ 오후 6-7시
성탄 축하/ 오후 7시-8시
- 바누아투 삼마 교회 헌당 예배에 잘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진 참조).

[11월 교회 사역 일지]

- 8일(금): 저녁 기도회
- 10일(주일): 전도주일
- 27일(수): 공동체 주관 예배 (통가)

INFO



[예배시간안내]

주일 1부예배	주일	11:20 am
주일 2부예배	주일	1:00 pm
청년예배	주일	3:15 pm
수요일예배	수	7:30 pm
새벽기도	금	5:30 am
유아부	주일	1:00 pm
청소년부	주일	1:00 pm

[섬기는사람들]

담임목사	이태한
부목사	이성철
부목사	이성훈

www.calvary.org.nz
www.youtube.com/calvaryorgnz
www.koreaniptv.co.nz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Ph) 09-369-5077 (Mb) 021-968-388
LTH-07@calvary.org.nz



해/외/한/인/장/로/교/회
갈보리교회
교회창립 1999 / 07 / 18

2019/11/02
21권 44호

배우고
확신한
앞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14

주일에배	1부 오전 11시20분	2부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찬양	-----	-----	주일 찬양단
예배로부름	-----	시편 148:1-4	인도자
■ 찬송	-----	35장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	269장	다같이
대표기도	-----	-----	박덕철 장로
성경봉독	-----	창세기 1:9-13, 24-25	인도자
찬양대찬양	-----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무십자가찬양단
설교	-----	나눔과 재음	이태한 목사
찬송	-----	436장	다같이
헌금기도	-----	-----	인도자
교회소식	-----	-----	인도자
■ 응답송	-----	445장	다같이
■ 축도	-----	-----	이태한 목사

■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30분	청년예배	오후 3시 15분
기도	김영옥 권사	금주기도	채다운 자매
성경봉독	마태복음 9:35-38	다음주일	박상영 형제
간증	[추수할 일꾼을 기다리며]	-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광희 장로		
찬송	496장		
주기도	다같이		

[11월 기도 순서]

- 11월 10일 (주일) / 박병민 장로
- 11월 13일 (수) / 김자경 권사
- 11월 17일 (주일) / 손조훈 집사
- 11월 20일 (수) / 박제용 장로

[11월 예배 봉사자]

- 예배 안내 / 이병대, 이애란
- 새신자 안내 / 차영철, 심경순
- 주차 안내 / 민광호
- 주방 봉사 / 박제란, 김명옥, 박영선 A

이번 주는 바누아투 정성욱 선교사 소식입니다.

동역하는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9월, 10월 초까지 여러 선교팀의 방문과 저희 거처를 옮겨야 해서 분주함 가운데도 은혜를 누리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8월 말 압브리 섬에서의 총회 기간에 여러 파트너 교단 선교 담당자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Ian Smith 목사 부부를 만났는데 그의 아내 제니는 아버지를 따라 어려서 바누아투에서 살았고 남편과 결혼 후 6년간 탈루아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아버지는 비슬라마어 성경을 번역한 선교사입니다. 자녀들 또한 아프리카에서 NGO 사역자로 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가족이 세대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함께 기도함에 좋은 본보기가 되는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다락방 이단 문제는 세 위원회의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봅니다. 바누아투 총회 교육부 교재 개발을 진행하게 되어 바우이 장로와 매주 수요일에 만나서 기도하며 준비 중인데 진전이 더딤니다. 무엇보다 현지 목사와 주일학교 담당 장로 및 교사들과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지 사역자들을 존중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힘내어 나갔으면 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구합니다.

10월 5일에는 대전 세광교회의 후원으로 건축한 포포호 초등학교 건축 기념식에 참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임하여 바른 신앙교육과 지식을 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포호 교회가 작년에 개척되고 올해는 교실 세 칸이 지어졌고, 정부에서는 중등교육과정까지 이루어 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이 온전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정부에서 선생님들을 파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교회 산하 학교임에도 교직원들의 종교가 다양합니다. 정부의 커리큘럼을 따르지만 기독교 사립학교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직원 교육 시즌 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믿음과 직장 생활 안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성경 속 인물을 통하여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지친 삶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길 기도합니다. 늘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감사드리고 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길 바누아투에서 기도드립니다.

정성욱 김금숙 선교사 올림

기도 제목

- 1) 북에파테섬 선교 거점 센터 구축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앞서가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 2) 비슬라마어를 배우는 데 지치지 않고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 3) 주원이 대학 진학과 예원이의 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도록

1.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2. 교회의 모든 부서들이 지나온 한 해를 점검하며 새해를 잘 준비하도록.
3.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실패와 낙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토요 일일 밀알 카페를 섬기며

지난 10월 26일 토요일, 김일만 목사가님 단장으로 계시는 밀알 선교단 주체 밀알 일일 건강 카페가 열렸다. 오랫동안 우리 교회는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장애인과 봉사자들을 위한 음식으로 협력해오고 있었지만 일 년에 한번 열리는 일일카페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못하는 대신 교회에서 일정 금액의 도네이션으로 후원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수입을 올려서 도네이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인원이 부족하여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차에 내가 속해 있는 네팔 공동체에 도움을 요청하자 모두들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셨다.

박현주 집사님이 꼬마 스시 50팩을 도네이션 하겠다고 하셔서 떡볶이와 스시가 최종 판매 메뉴로 선정되었다. 전날까지 날씨가 안 좋아서 걱정했었는데 막상 당일에는 날씨가 너무 좋았고 우리 교회의 판매 부스는 선교관 정문에서 바로 보이는 목이 제일 좋은 곳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판매를 계획했던 시간은 두 시간이었지만 꼬마 스시와 떡볶이의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전에 모두 매진되었다. 떡볶이는 중간에 떡을 더 사 와야 할 정도였고 미리 주문해 놓고 기다리는 분도 있었고 아쉬워하며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나중에 계산해보니 \$487의 수입을 올렸고 전액 밀알 장애우를 돕는데 도네이션 하였다.

이 일을 함에 있어 한 가족처럼 사랑과 헌신으로 도와준 네팔 공동체 식구들, 여행의 피로가 가시기도 전에 와서 판매를 도와준 허영순 집사님, 바쁜 가운데도 오셔서 격려해주신 이태한 목사님, 현석호 장로님, 이광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린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팔 공동체장 이옥화 집사

사 단 범 일 뉴질랜드밀알선교단
세계밀알연합



창세기1: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